

“유일신 한계... 親人間적 진리 매료”

원인과 현황

유럽인들이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종교로서가 아닌 학문적 차원이었다. 유럽 각국은 불경을 번역하거나 불교철학과 인도학을 연구하는 등 신비로운 동양사상의 실재를 벗기려는 학문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은 유일신만을 강조하며 독선적 입장을 취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상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불교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은 불교의 진정한 매력은 생활속에 녹아들 수 있는 친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허무주의와 공허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모순이 자신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자신의 정화를 위해 참선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또 물질지향주의와 소비생산 위주의 생활 방식에서 탈피하길 원한다. 그래서

신도 1500만명... 禪센터 중심 신행 티벳불교 강세... 한국불교 '가능성'

금욕과 절제를 권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다.

사회의 '불교바람' 현상에 대해 유럽기후와 유럽인들의 철학적·사색적 정서가 불교의 교리나 수행법과 맞아 떨어진다든 견해도 있다. 어쩌면 이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불교에 접목, 자신들의 불교로 변형, 발전시킬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불교가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한 때는 1800년대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불교인구는 1995년 영국 브리태니커사전에 따르면 1천5백만 정도 6개 대륙중 아시아에 이어 두

유럽사회 왜 불교열풍 일까

창간 3주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유럽인들이 불교에 매혹당하고 있다. 이제 유럽 곳곳에서 조깅까지 차림으로 동그란 방석 위에 올라앉아 책상다리를 한 채 벽을 마주보며 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 불교는 불교열풍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현황과 한국불교의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반대로 많다.

유럽에서 불교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두 나라의 불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며, 사찰건립이 계속되는 등 하나의 종교로서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

영국불교도협회와 런던불교도협회 등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태국, 스리랑카 등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찰로는 89년 연화사가 개원해 활동하고 있

나 그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1980년대초 본격적인 불교활동이 시작된 폴란드에서는 티벳불교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결합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불교는 바르샤바의 도암사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 법당과 참선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1930년대 불교를 받아들인 체코 역시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리랑카, 일본불교도 진출해 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관공회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미약한 실정이다.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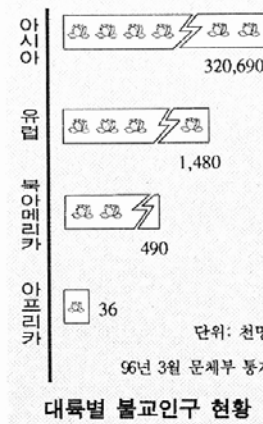


◇오늘날 유럽인들이 불교에 쏟는 관심과 진지한 구도열은 동양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유럽불교의 꽃이 필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사진은 체코인들이 법당에 모여 법회를 열고 있는 모습.

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Zen)센터 중심의 불교활동이 왕성하며,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곳에서 한국불교는 티벳이나 대만, 베트남, 일본불교 등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치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불교가 해외포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려는 것은 1960년대부터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한국 불교가 진출해 있는 유럽국가로는



대륙별 불교인구 현황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 스위스 등 17개국이며, 포교사 수는 모두 76명으로 집계됐다.

해외포교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종단의 체계적 지원과 인재 양성이 꼽힌다. 그동안의 해외포교는 몇몇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진행됐을 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위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불교뿐만 아니라 그나라의 언어, 문화와 관습 등을 제대로 아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그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의식이나 설법 등 포교방법 개발과 한국불교를 담은 출판물을 통한 홍보, 국내교단에서 해외 순회법회나 공연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등도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명우 기자

“보살승 중심 신행 기대”

美 버스웰교수가 말하는 '미국내 한국불교'

UCLA 부설 '한국학 연구소' 소장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 대 불교학)가 8일 '미국에서의 한국불교 포교 동향과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전문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는 중국·일본불교보다 늦은 1970년대 미국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현재 다양한 불교종파가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특징은 '집진적 포교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제인스 그레이스(英)이

접촉→이식→침투→성장 불교와 기독교: 긍정적 포교과정 밟아

세계의 직업을 가진 재가 신도와 철저하게 수행하는 출가스님의 삶을 결합한 형태의 삶을 사는 불자를 지칭한다.

이것은 한국불교가 전통적인 비구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종교 단체의 일반적인 활동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불교가 미국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포교 영역을 넓혀가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

美 대중문화 불교장르 '뚜렷'

영화·미디어·팝 등에 불교소재 확산

13일자로 발행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표지제목으로 'Buddhism'을 뽑은 서체로 크게 올리고,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의 주연 배우인 브래드 피트를 표지인물로 내세웠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정열'을 주제로 불교가 미국사회에 어떻게 융화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중에는 1988년 이후 영어로 불교교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4백30개에서 1천62개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담겨있다. 불교 영화, 각종 미디어, 팝문화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시류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은 미물(微物)과 공(空)에 관한 얘기를 통해 불교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티베트에서의 7년'에서 브래드 피트가 "보잘것 없는 별레도 정선에 당시 모친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쿤뎀'은 색즉시공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티베트의 테러' '티베트의 정열' 등 불교 소재로 한 영화 5편이 제작중



에 있다. 시트콤 '달마와 그렉'이 인기를 끌고 있는가하면 광고에 스님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참선을 통해 불도를 배우고 있으며, 라디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교를 접하고 있다.

미국에 중·장년층은 이제 불교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있다.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은 불교로부터 정신적 위안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불교는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귀의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프랑스의 불교

4명중 1명 윤회론 믿어 30여 대학에 불교관련 연구소

'불교신자의 물결'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은 2백만명'... 프랑스 언론들이 심심찮게 커버스토리로 올리고 있는 제목들이다. '20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놀랄만한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불교신도의 증가는 최근 몇년 사이에 두드러지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프랑스 사회에 불기 시작한 불교바람은 가톨릭 국가로서는 보기드문 60단의 신도와 프랑스인 4명중 1명이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를 믿는다는 '믿지못할'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도로 거센 물결을 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30여 대학에 불교·인도학 연구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불교학연구는 유럽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불교관련 출판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종교관련 서적의 10%다. 인터넷서점인 아마존 사이트를 검색하면 불교관련서적 1천2백여권정도를 찾을 수 있다. 지난 4월 출간된 철학자 아버지와 승려 아들의 대화록인 <승려와 철학자>는 자비의 진실된 의미와 윤회 등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대해 던지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불교는 한마디로 티벳불교로 표현된다. 달라이라마의 인기는 세계 최고의 대중스타들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한국불교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93년 최초의 한국사찰 길상사가 파리근교 토르시에서 개원했을 뿐이다.

독일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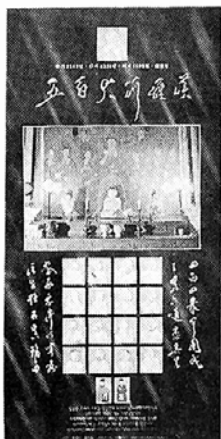
소도시마다 선센터 개설 불경원전 연구 '세계일류'

독일은 유럽에서 단연 으뜸가는 선불교국가로 지칭된다. 1백여개가 넘는 선(Zen)센터가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문을 열고 있다. 종교에 관계없이 선센터는 독일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4만5천명의 불교신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 선도 많이 보급돼 있으며, 태국,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의 동남아 소승불교도 활발한 편이다.

독일 역시 프랑스 못지 않게 불교학 연구가 활발하다. 20여개 대학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불경원전연구는 세계 일류 수준으로 꼽힌다. 출판 역시 매년 20여권 이상의 불교관련서적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

세계최초 오백아라한 성상으로 제작된



'98 새해 달력

- 가로×세로/30×610cm
- 4도 칼라
- 제본/13장 PVC Holder
- 주문/기본 500부
- 1부당 가격/W1,200
- 타지역 우송료 별도

- ★ 글 : 동국 일타콘스님
- ★ 사진 : 오 명 숙
- ★ 제작 : 한단기획

자비로 접수하여 주시는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지성 귀의하옵니다. 그동안 저희 한단기획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98년 새해 달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불기 2542년 달력은 팔공산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제14호)에 모시고 있는 526의 나한성상상을 한분도 빠짐없이 실어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최초 오백나한님의 모습을 담은 이 달력의 표지에는동국일타 콘스님께서 오백나한님을 찬탄하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학계의 자료가 되고 불교 달력에 큰 획이 될 오백아라한 98년 달력에 여러 대덕 스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한단기획이 되겠습니다.

한단기획 대표 박 현 상 합장

200여년전 영파콘스님 친필로 제작되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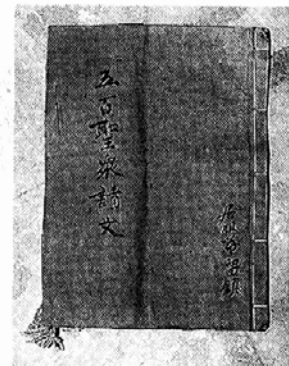
「오백성중청문책자」 재현

- 가로×세로/37×50cm
- 200여년전 영파콘스님께서 쓰신 5백성중청문책자가 거조암 영산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나한님을 모신 사찰이나 문화관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한지를 사용하여 원본과 똑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한정주문판매: 200권
- 가 격 : w 70,000



주문처

한단기획 출판제작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3-48번지

전화 : 053)255-8612 FAX : 256-8672